‘전등사서’에 담긴 金言서 길을 찾다

〈傳燈史書〉



전등수필2
월암 스님 지음
담앤북스/ 1만6800원

월암 스님 ‘전등수필’ 2번째 이야기
전등록 등 글귀 엄선해 수필로 묶어
단순 명쾌한 문체, 죽비로서 다가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저자 **불이 월암 스님**은… 1973년 경주 중생사에서 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전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후 중국과 한국의 제방 선원에서 수선 안거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벽송사와 기기암 선원장 소임을 지냈다. 지금은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에서 정진하며 사부대중 수행공동체 ‘불이선회(不二禪會)’ 를 이끌고 있다.저서로는 〈간화정로〉〈돈오선〉〈친절한 간화선〉〈선원청규(주편)〉〈좌선요결〉〈니 혼자 부처 되면 뭐하노〉〈생각 이전 자리에 앉아라〉 등이 있다.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에서 정진하며 사부대중 수행공동체 ‘불이선회(不二禪會)’를 이끄는 불이 월암 스님은 한국불교의 선맥(禪脈)을 잇고 있는 대표 수좌 중 한명이다. 월암 스님이 〈전등수필〉 그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왔다.

책 제목 〈전등수필〉에서 ‘전등’은 선사들의 법어와 선문답, 전법 내력 등을 모아 놓은 책인 ‘전등사서(傳燈史書)’를 의미한다. 말 그대로 〈전등수필〉은 월암 스님이 〈전등록〉과 〈선문염송〉을 열람하며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 글귀를 엄선해 수필 형식으로 엮은 책이다. ‘전등사서’ 중에서도 오늘날 우리 삶에 이정표이자 거울이 될 만한 이야기를 골라, 스님 특유의 간결하고 담박한 해설과 법문을 더한 〈전등수필〉은 지난해 1권이 출간돼 많은 이들의 가슴에 선풍(禪風)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책은 쉽지만 가볍지 않다. ‘전등사서’ 속에 담긴 깨달음과 가르침은 결코 시대 지난 ‘옛이야기’가 아니다. 한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를 통해 나를 성찰하고 인생의 여러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체득할 수 있으며, 먹고사는 일에 쫓겨 놓치고 있었던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 법에 대한 정견(正見)을 갖추고 해탈에 이르기를 바라는 불교 수행자부터 실천 가능한 삶의 지침을 찾으려는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전등사서’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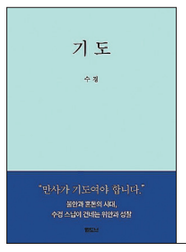
1권에서 ‘오직 모를 뿐’ ‘조고각하’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같이 비교적 널리 알려진 구절들을 소개했다면, 이번 2권에서는 부처님과 옛 선사들의 가르침에 한걸음 더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내용은 깊어졌지만 간결하고 담박한 문체로 풀어낸 1권의 재미와 감동만큼은 고스란히 이어진다.

선 수행자로서 오랜 세월 한국과 중국의 제방 선원에서 수행해 온 월암 스님은 〈전등수필〉을 통해 간결하지만 예리하고 명쾌한 직관으로 우리 시대에 일침을 놓는다. 사유가 부족한 시대, 외로움과 불안함에 익숙해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등수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고 지금의 나에 집중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나아가 깨어 있고 열려 있는 삶을 통해 공감·공명·공존의 불이(不二) 세상을 만들어 가는 선(禪)적 해답을 제시한다.

〈전등수필2〉로 독자들을 찾아 온 월암 스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당부한다. 부디 밖에서 찾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온전함을 깨달으라고.

눈이 천 개인 관자재보살은
등불을 빌리지 않는다.
또한 눈이 없는 사람도
등불을 빌리지 않는다.
온몸이 눈이기 때문이다.
온몸 그대로 법신이요,
온 마음 그대로 비로자나(광명)이다.
부디 밖에서 찾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온전함을 깨달으소서.

“만사가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
수경 스님 지음
엘도브/ 1만7000원

오체투지 수경 스님이 전하는
따뜻한 위안과 성찰의 메시지

우리에게는 새만금 살리기 삼보일배와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를 위한 오체투지로 잘 알려진 수경 스님. 스님은 길바닥을 법당 삼아 생명과 평화의 길을 온몸으로 설했던 환경보살이었다. 하지만 수경 스님은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를 위한 오체투지 이후 대외 활동을 일체 중단했다. 그나마 최근 들어 〈불교평론〉에 앞으로 불교환경운동의 방향성을 제언하는 기고글을 발표하는 등 조용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수경 스님이 오랜 침묵을 깨고 발표한 저서 〈기도〉는 당신이 한주로 있는 (사)세상과함께 회원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세상과함께는 환경과 생태 문제 해결에 매진하는 환경단체와 환경운동가를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봉사 단체다.

수경 스님은 세상과함께 회원들이 늘 고맙고 자랑스러웠다고 한다. 그래서 스님은 이들에게 공양하기 위해 대내용으로 작은 책을 구상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본 몇몇 사람들이 세상과함께라는 단체의 취지에 비추어 봐도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스님을 설득했다. 수경 스님은 망설이다가 “이런 얘기가 세상에 무슨 소용이 될지 모르겠으나, 정히 생각이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했다. 그렇게 〈기도〉가 세상에 나오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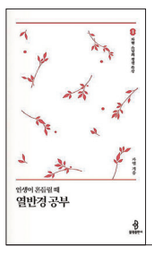
〈기도〉는 기도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거나, 기도하는 법을 일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 그것보다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기도가 필요한지를 스님의 체험을 통해 이야기한다. 그야말로 수경 스님의 기도 이야기다. 강하게 주장하지도, 논리적으로 설득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공감된다. 체험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의 힘이다.

수경 스님이 이 책에서 말하는 기도는 삶의 태도이기도 하다. 삶과 기도, 삶과 수행이 따로따로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삶이 기도가 되게 하고, 기도가 삶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일상을 벗어나 따로 구해야 할 도가 없다’는 조사선(祖師禪)의 도리와도 통한다.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수경 스님이 출가 초기 은사스님을 모시고 살 때부터, 화계사 주지,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밝혔다. 둘째 부분은 화계사 주지 소임을 살 때 신도들과 기도하면서 송독한 기도문이다. 화계사라는 특정 사찰과 시점에 구속되지 않는 보편성을 띤 기도문이므로 독자들이 처한 저마다 업의 문제를 감내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부분은 오체투지를 할 때의 심경을 밝힌 글이다. 이 글을 읽어 보면 수경 스님의 오체투지가 단순히 환경운동의 수단이 아니라 성찰과 참회의 기도였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신중일 기자

인생 흔들린다면 ‘열반경’ 공부를



인생이 흔들릴 때 열반경 공부
자현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2만2000원

불교에서는 무지(無智), 즉 무명(無明)의 상태를 번민(煩悶)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는다. 그래서인지 삶의 어느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알고 하는 일보다 모르고 하는 일이 더 위험하다고 가르친다. ‘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바르지 못한 길을 가더라도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앎을 위한 공부는 인생을 바른길로 인도하고,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의 기본 바탕이 되어 준다.

불교계 전방위 지식인 자현 스님은 흔들리는 인생의 훌륭한 버팀목으로 인류의 가장 오래된 고전인 ‘불교경전’의 인문학적 공부를 제안한다. 옛 성인들의 지혜를 바르게 이해하고, 몸과 마음에 아로새기는 경전 공부의 힘은 흔한 힐링이나 위로의 말보다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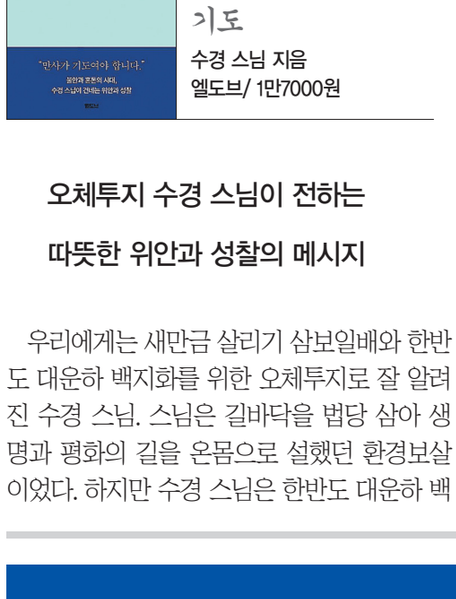
이 책은 ‘자현 스님의 경전 특강’, 그 첫 번째 책으로 붓다가 마지막 순간에 전한 지혜의 경전인 〈열반경〉에 대해 다룬다. 국내에서는 〈금강경〉이나 〈반야심경〉만큼 주목받는 경전은 아니지만, 자주 들어본 경전이기도 하다.

저자는 완전한 깨달음이자 불교 수행자의 최종 목표이기도 한 열반의 역사를 되짚어간다. 그래서 이 책의 시작은 열반을 둘러싼 교리 발달사의 정리나 다름없다. 인도불교는 왜 열반에 주목했는지, 붓다를 완성하는 열반의 세 가지 관점은 물론, 붓다 사후에 이루어지는 종교화 과정과 그에 따른 문화 양상, 대승불교의 탄생과 흥기 속에서 변모·발전해 가는 사상의 면모까지 열반의 이모저모에 대해 살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열반경〉의 핵심 사상은 무엇일까. 저자에 따르면 〈열반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완전한 이상의 경지, 그리고 우리에게 내재한 불성의 조화”를 이야기하는 경전이다. 고로 〈열반경〉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불성(佛性)사상’이다. 불성이란 곧 ‘붓다의 종자’라는 의미로, 모두가 노력하면 붓다가 될 수 있다는 보편성과 평등을 역설한다. 이는 〈열반경〉의 핵심 구절인 ‘일체중생 실유불성’으로 완성된다.

신중일 기자

『사랑하며 용서하며』는 과연 무엇이 특별한가?
그것은 오로지 하나, 향봉 스님의
가슴 시리도록 처절하고 아름다운 진솔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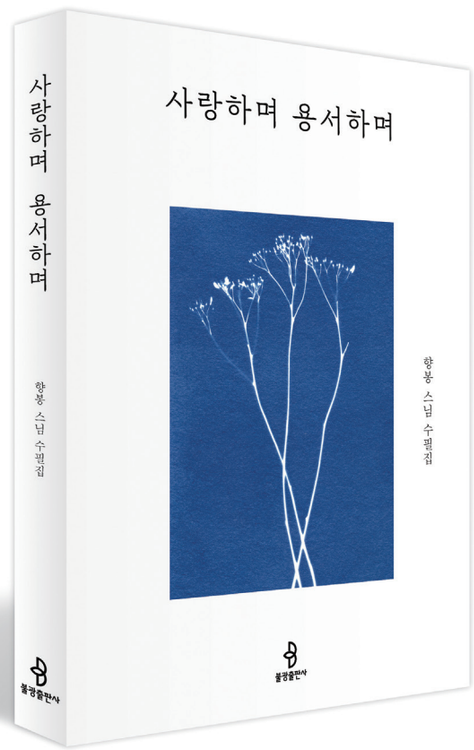


1979년 초판 출간 이후
60만 독자를 울린 우리 시대의 고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을 읽은
독자들이 먼저 알아보고 강제 소환한 바로 그 책,
1991년 증보판 이후 33년 만에 복간판으로 재탄생하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향봉 스님 수필집

향봉 지음 | 264쪽 | 17,000원



향봉 스님
익산 미륵산 사자암 주지. 상좌도 공양주도 없이 홀로 밥 지어 먹고, 글 쓰고, 산책한다. 어린 시절에 백양사로 출가했고, 해인사 선방을 거쳐 〈불교신문〉 편집국장과 부사장을 지냈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총무부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하며 불교계 ‘실세’로 활동하기도 했다. 반면에 1973년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한 시인으로서, 수필집 『사랑하며 용서하며』가 60만 부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 저자로 유명세를 떨쳤다. 늦은 나이에 철이 들어, 인도, 네팔, 티베트, 중국으로 15년의 치열한 구도행을 떠났다. 이후 돌아와 20년째 사자암에 머무르며, 머리와 수염이 허연 미륵산의 한가로운 노승으로서 할 일 없이 평화와 자유 누리며 살고 있다. 2023년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을 펴내며, 오래도록 그리웠던 스님의 글맛을 절절하게 펼쳐놓았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불광미디어